

일회용 플라스틱 지고 친환경 제품 뜬다

파리지사

환경 위협하는 플라스틱의 종말

-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85%를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연간 유럽 내에서만 약 2,500만 톤이 발생되며 그 중 30%만 재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에 따라 EU에서는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규제안을 발표했다. 사용금지 제품은 빨대, 커피막대, 음료수 용기 등이며 이를 2021년까지 친환경적 물질로 대체할 것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 플라스틱 사용금지 규제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34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220억 유로의 환경파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



프랑스

프랑스는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세계 최초로 생물다양성 회복의 대안으로 4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발표했다. 그 중 일회용 비닐봉지(용량 10리터 이하, 두께 50미크론 이하) 사용이 금지되었다.



스위스

스위스의 경우 2018년 4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위해 시민단체를 결성한 데 이어 오는 2019년 1월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다.



캐나다

캐나다의 밴쿠버는 2019년 6월부터 식당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미국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최초로 2007년부터 페트병에 담긴 생수판매를 금지했으며 2017년 6월부터 스티로폼 포장과 일회용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는 미생물에 의해 완전 분해가 가능한 원료를 활용해 친환경 플라스틱 용기 제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과학환경기술부는 밀라노 대학과 친환경 PLA* 소재로 만든 플라스틱 용기 제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 PLA : Poly Lactic Acid.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지.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아기가 입으로 물거나 빨아도 환경호르몬은 물론,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소재. 사용 중에는 일반 플라스틱과 동등한 특성을 가지지만 폐기 시 미생물에 의해 100% 생분해되는 재질.





1

1. Deliveroo의 친환경소재 포장용기
2.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포크, 나이프, 스푼

새로운 포장 용기가 식문화 바꾼다

- 영국의 온라인 음식배달 서비스 회사인 ‘딜리버루 (Deliveroo)’는 최근 유럽연합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에 따라 플라스틱류 포장을 거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스럽게 100% 생분해*되는 친환경적인 포장을 위해 12개 국가 35,000개의 레스토랑과 협업하고 있다.
-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식 주문시 일회용 칼과 포크를 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며 현재 종이나 대나무 성분의 대체 포장용기로 배달하고 있다. 하지만 뜨거운 액체 제품 포장에 대한 대체품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 생분해 : 박테리아, 균류, 다른 생물에 의해 화합물이 무기물로 분해되는 것.



2

출처 : 이탈리아 온라인 환경 관련 소식지(www.rinnovabili.it)
newatlas.com, 한국외식신문, deliveroo.co.uk,] en.wikipedia.org